

# “이렇게 인기있을 줄이야” 탄생수 숲, 나무 심을 땅이 없다

### 영광군, 출산 장려 위해 기념숲 조성...5년간 933명 참여 새 부지 못 구해 사업 중단 위기...주민들 “사업 계속되길”

지방소멸시대 영광군이 신생아의 이름을 딴 ‘탄생수’를 심는 특화사업을 추진해 주목받고 있다.

2019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5년만에 900여그루를 심었으나 나무심을 토지가 부족해 추가 부지를 확보해야 할 정도다.

12일 영광군에 따르면 영광군은 올해 ‘신생아 탄생 기념숲 나무심기’ 사업으로 영광읍 영광읍 우산근린공원 일대에 96그루의 단풍나무를 심는다.

신생아 탄생 기념숲 나무심기는 신생아를 출산한 부모의 신청을 받아 아이의 이름과 소원을 담은 신생아 탄생수를 심는 사업이다.

영광군은 출생의 기쁨을 되새기고 출산 문화를 장려해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 탄생수를 심다보면 수년 후 탄생수 수백 그루로 이뤄진 숲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탄생수는 전나무·왕벚나무·소나무·동백나무·단풍나무 등이 식재되며 탄생수 앞에 신생아의 이름과 탄생축하·건강기원 문구 등이 적힌 팻말

을 게시한다.

영광군은 지난 5년간 영광군에 태어난 신생아 총 2175명 중 933명(42.8%)의 이름으로 탄생수를 심었다. 전체 신생아 가운데 절반 가량의 가족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남겼다.

연도별로는 2019년 신생아 534명 중 183명의 이름의 탄생수를 심기 시작해 ▲2020년 586명 중 254명 ▲2021년 458명 중 192명 ▲2022년 405명 중 208명 ▲2023년 192명 중 96명의 이름으로 탄생수를 식재했다.

영광군은 매년 ‘신생아 탄생 기념숲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해 신생아의 가족이 직접 나무를 심게 하고 있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영광군이 대신 탄생수를 심었다.

영광군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행사, 외출이 제한됐던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모를 대신해 탄생수를 식재하며 명맥을 이었다.

현재 전국 가입여성 출산율이 0.78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영광군은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에는 출산율 1.8을 기록해 전국 평균 출



영광군 영광읍 우산근린공원 탄생수 앞 팻말에 아이의 건강을 기원하는 부모의 소원이 적혀있다. (왼쪽) 우산근린공원 ‘신생아 탄생 기념숲’. <영광군 제공>



산율의 2배를 넘겼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자치단체로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탄생수 식재 공간 부족 때문에 내년부터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탄생수의 성장공간, 영양섭취 등을 고려해 나무 간 최소 3m의 식재거리를 확보하다보니 이미 탄생 기념숲이 포화상태가 됐다.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부지를 물색해야 하는데 마땅한 부지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영광군에서 애초 탄생수 식재 후보지로 점찍었던 불무산은 이미 산지에 숲이 조성된 상태로 새로운 탄생수를 심을 수 없는 형편이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내 아이의 이름을 단 탄

생수를 심을 수 있는 사업이 지속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영광군 관계자는 “오는 21일 50여명의 신생아가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탄생수를 심게 됐다”며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세 살 아들 수갑 채우고 딸 앞에서 아내 폭행

### 아동학대 아버지 2명 징역형

장남친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수갑을 채운 아버지와 딸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아버지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판사 나상아)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수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세 살 배기 아들의 등과 얼굴 등을 때리거나 수갑을 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월 아들이 목 위에 올라 타려고 하자 화가나 아들의 양손과 발에 수갑을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친부로서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 책임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A씨가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전과가 있는 점, 최근 이

혼해 친모가 양육자로 지정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같은 재판부는 아동학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42)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 7월 20일 자택에서 눈썹칼로 허벅지를 자해하는 10대 딸을 혼계하면서 욕설하고, 자신을 말리던 아내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는 정당한 훈육 목적이거나 범위·수단을 넘어선 정서적 학대로 봐야 한다”며 “딸과 모친이 B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족관계 유지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전남 아동학대 5년새 3배 급증

지난해 각 293건·351건

광주·전남에서 아동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전남 지역 아동학대 검거건수는 3배 가량 증가했다.

광주는 2018년 108건에서 2019년 147건,

2020년 156건, 2021년 262건이었으며 지난해에는 293건으로 집계됐다.

전남 역시 2018년 127건에서 2019년 239건으로 대폭 늘어났고 2020년 289건, 2021년 361건, 2022년 351건이었다. 전국적으로도 증가세를 보였다. 2018년 3696건이던 검거건수는 지난해 1만 197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학대 유형은 지난해 기준 신체적 학대가 전국적으로 809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서

(2046건), 방임(756), 성학대(321)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관계는 지난해의 경우 부모가 1만 630건이었으며 타인(690건), 교원(645건), 보육교사(550건), 친인척(454건)이었다. /김다인 기자 kdi@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5·18가치그림책 전국 순회전 열린다

연말까지 서울·대구 등서

5·18기념재단이 올해 말까지 광주와 서울, 대구, 순천, 김해 등지에서 ‘5·18가치그림책 순회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5·18가치그림책’은 5·18기념재단과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이 협업해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사업을 통해 전국 및 세계의 초등학생들을 모아 5·18민주화운동의 가치인 평화, 용기, 공동체 등을 어린이의 시선으로 표현하는 그림책 20권을 만들었다.

그림책은 광주·서울·경기·전북뿐 아니라 독일 비스바덴 한글학교 학생 26명까지 총 20학급 462명이 참여해 직접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썼다.

김해시 봉하마을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에서는 지난 1일부터 상설 전시를 시작했다. 상설전시는 내년 10월까지 1년 동안 이어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작품을 훼손하지 않고 지속 전시할 방침이다.

순회전은 대구시 동구 ‘책방아이’(10월 11~25일)를 시작으로 서울시 도봉구 ‘김근태기념도서관’(11월 1~15일), 순천시 행동 ‘골목책방 서성이다’(11월 20일~12월 4일), 광주시 광산구 신장동 ‘예지책방’(12월 6~20일) 순으로 이어진다.

다음 달 4일에는 서울 김근태기념도서관에서 이해중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이 방문객을 대상으로 5·18가치그림책의 제작 과정과 의미, 활용도 등을 소개하는 시간도 갖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광주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 포럼

광주과기원서 19~20일

정부의 연구용 URL 구축계획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 기술 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포럼이 열린다.

(재)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단은 오는 19일과 20일에 광주과학기술원 오통관에서 ‘제2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기술 포럼’을 개

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포럼은 1박2일간 총 5부에 걸쳐 진행된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 포럼은 이달 13일까지 네이 버 폼(<https://forms.gle/Y9bghrRmDJXwtg88>)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자연도, 부모님도

# 사랑합니다.

수목장(자연장)을 무료로 안치해드립니다.  
(회원에 가입 한 분에 한함)

광주수목장 문의 062.449.4446